

## 〈홍계월전〉의 군담 변이와 이본 분화의 상관성\*

정 준 식\*\*

### 차 례

- |                               |                        |
|-------------------------------|------------------------|
| 1. 서론                         | 3. 후대 이본의 군담 변이와 결말 방식 |
| 2. 단국대 96장본 〈계월전〉에 수용된 군담의 특징 | 4. 군담 변이와 이본 분화의 상관성   |
|                               | 5. 남은 문제               |

### 국문초록

이 글은 〈홍계월전〉의 군담 변이와 이본 분화의 상관성을 탐구한 것이다. 이를 위해 초기본의 면모를 지닌 단국대 96장본의 군담을 후대 이본들의 군담과 대비적으로 검토하였다.

〈홍계월전〉은 창작 당시부터 군담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결함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후대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이런 모순을 인식한 독자들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 군담과 결말에서 다채로운 변이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 변이는 장편 계열 내에 국한되지 않고 장편의 단편화와 단편 계열에까지 수반됨으로써 새로운 이본의 분화를 촉진하였다.

\* 이 논문은 동의대학교 2015학년도 연구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동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홍계월전>은 장편 계열이 먼저 생성되었다. 처음에 초기본의 군담 1·2·3을 ‘지속’한 단국대 96장본 유형이 단선적으로 전승되다가, 초기본의 공통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군담 4를 별도로 설정하여 기존 군담을 ‘확대’한 단국대 103장본 유형이 생성되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장편 계열에서 단편 계열이 파생되기도 하였다. 단편 계열은 장편 계열에서 군담 1·2만 남기고 나머지를 ‘생략’한 한중연 45장본 유형과, 남겨진 군담 1·2에서 군담 2를 ‘변개’한 단국대 38장본 유형으로 분화되었다. 수집된 이본을 근거로 삼을 경우 네 유형 가운데 ‘단국대 96장본 유형’과 ‘한중연 45장본 유형’이 각기 장편 및 단편 계열의 주류를 형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향후 <홍계월전>의 이본 논의는 장편 계열에서 단편 계열로의 이행을 기반으로 삼되, 본고에서 수립한 네 유형을 중심으로 이들의 얽힘과 개별 이본들의 변별성을 확보해 나가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장편 계열, 단편 계열, 단국대 96장본, 군담, 결말 방식, 이본 생성

## 1. 서론

최근 <홍계월전>에 대한 연구<sup>1)</sup>에서는 그동안 대중을 이루었던 활자본 중심의 논의가 줄어들고 단국대 103장본을 대상으로 한 논의가 점차

1) 이기대, 『고등학교 교과서를 통해 본 <홍계월전>의 정전화 과정』, 『우리문학연구』 제37집, 우리문학회, 2012 ; 김정녀,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본 여성영웅 홍계월』, 『고소설연구』 제35집, 한국고소설학회, 2013 ; 조광국, 『고전소설 교육에서 새롭게 읽는 재미 : 홍계월의 양성성 형성의 양상과 의미, -<홍계월전> ‘한중연 45장본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제28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4 ; 조민경, 『갈등양상을 통해 본 <홍계월전>의 지향가치』, 『한국어와 문화』 제18집, 숙명여대 한국어문화연구소, 2015 ; 김현화, 『홍계월전의 여성영웅 공간 양상과 문학적 의미』, 『한민족어문학』 제70집, 한민족어문학회, 2015.

활기를 띠고 있다. 이는 단국대 103장본이 원전을 계승한 이본 가운데서도 선본(善本)으로 추정<sup>2)</sup>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그런데 단국대 103장본이 원전을 계승한 이본 중에서 선본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를 “원작의 내용을 가장 충실히 계승한 이본”<sup>3)</sup>으로 단정하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단적인 예로 단국대 103장본이 원전에 근접된 것이라면, 적어도 그와 동일한 내용을 지닌 이본이 미약하게라도 한 줄기를 형성하고 있어야 할 터인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원전 계열로 추정되는 장편 이본 7종을 검토해보니 네 차례의 군담을 완벽히 그려내고 있는 이본은 단국대 103장본 외에 달리 발견되지 않는다. 물론 이른 시기에 필사된 이본이라면 먼저 소실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지만, 이런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단국대 103장본을 원전에 가장 가까운 이본으로 보기에 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홍계월전>에는 유독 군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본에 따라 군담의 비중과 내용이 다른 것 또한 사실이다. 나아가 군담의 변이는 결말부에도 영향을 미쳐 군담을 어떻게 그려내는가에 따라 결말의 시점과 방식이 달라진다. 따라서 <홍계월전>의 이본 계통과 실상을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담의 변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원전을 계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단국대 103장본 계열에서 필사시기가 앞서는 완질본을 선정한 후, 이를 후대본과 대비적으로 검토하면서 군담의 변이양상을 추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군담의 변이가 <홍계월전>의 이본 생성 및 분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홍계월전>의 이본 계통을 새롭게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줄고, 『<홍계월전> 이본 재론』, 『어문학』 제101집, 한국어문학회, 2008, 267쪽.

3) 줄고, 『<홍계월전>의 구성원리와 미학적 기반』, 『한국문학논총』 제51집, 한국문학회, 2009, 53쪽.

필자가 수집한 <홍계월전>의 이본 가운데 필사시기가 가장 앞서는 이본은 단국대 96장본 <계월전>이다.<sup>4)</sup> 단국대 96장본은 최근 <홍계월전> 연구에서 보조 자료로 활용되는 정도였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이본은 기묘년(1819)에 여항에 떠돌던 <홍계월전>을 필사하여 오랫동안 애독해오던 한 여성 독자가, 그것이 훼손되자 신유년(1861)에 다시 바깥에서 빌려온 <홍계월전>을 필사한 것이다.<sup>5)</sup> 이와 같이 단국대 96장본은 19세기 초반에 유통되던 <홍계월전>의 내용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단국대 96장본 <계월전><sup>6)</sup>을 핵심 자료로 삼는다.

## 2. 단국대 96장본 <계월전>에 수용된 군담의 특징

<홍계월전>은 여타 여성영웅소설에 비해 군담의 비중이 매우 높다. 초기본으로 추정되는 단국대 96장본에는 서번·서달의 침공, 오·초 양국의 침공 1, 오·초 양국의 침공 2로 야기된 세 차례의 전쟁이 구체적 장면으로 축조된 데다가, 장사랑의 난과 오·초 양국의 습격 사건까지 결들여 있으니, 군담을 제외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그런데 <홍계월전>이 후대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원전의 군담이 다채롭게 변이되자 그것이 결말에까지 영향을 끼쳐 새로운 이본 생성의 계기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본장에서는 후대 이본과의 비교를 위한 초기

4) 필자가 수집한 장편 계열의 이본은 9종인데, 이 가운데 완질본은 7종이다. 이들 중에서 필사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이본은 연세대 29장본(檀紀四二九四年, 1961), 단국대 59장본(갑진, 1904), 한중연 60장본(신해, 1911), 단국대 96장본(신유, 1861)이다. 다른 이본들과 비교해 볼 때 단국대 96장본이 최소 43년, 최대 100년이나 앞선다.

5) 줄고(2008), 269-271쪽.

6) 단국대 96장본 <계월전>은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울곡기념도서관 '나손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본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단국대 96장본의 군담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한다.

단국대 96장본에는 모두 세 차례의 군담이 형상화되어 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서번·서달과의 전쟁을 ‘군담 1’로, 오·초 양국과의 전쟁 1을 ‘군담 2’로, ‘오·초 양국과의 전쟁 2’를 ‘군담 3’으로 명명하기로 한다.

군담 1은 곽도사에게 수학한 계월과 보국이 환로에 오른 직후에 발생한다. 이 전쟁에 계월과 보국은 각기 대원수와 중군장으로 출정하는데, 보국은 계월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적진으로 달려가 맹렬히 싸우다가 적장의 유인책에 말려들어 죽을 위기를 맞는다. 이에 계월이 급히 가서 보국을 구한 뒤 그를 군법으로 다스려 죽이려다 장수들의 만류로 마지못해 목숨을 살려준다. 이처럼 첫 번째 접전에서 보기 좋게 패한 보국은 계월에게 목숨을 구걸해야 할 만큼 위신이 크게 추락된 모습을 보인다. 한편, 다시 전열을 가다듬은 계월은 다음 날 직접 적진으로 나아가 적장 악대의 머리를 베자 위기를 느낀 철통골이 특단의 계교를 내는데, 그것은 천문동 어귀에 몰래 군사를 매복시켜 둔 후에 계월을 그곳으로 유인해 불살라 버리려는 매복·화공 작전이다. 서달이 철통골의 계교를 즉시 실행하자, 여기에 걸려든 계월은 천문동 어귀에서 적진에 포위되어 꼼짝없이 죽을 위기를 맞게 된다. 그러나 계월은 지난 날 곽도사가 챙겨준 부적으로 겨우 위기를 모면한 뒤, 벽파도로 도망간 서달과 철통골을 추격하여 사로잡고 마침내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

그런데 <홍계월전>의 군담 1에 형상화된 ‘천문동 매복·화공작전’은 <소대성전>의 군담 중 일부와 너무도 흡사하다. <소대성전>의 군담은 호왕과 선우가 합심하여 변방을 침범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에 명군에서는 평장군 서경태, 좌장군 유문영 등이 80만 대군을 거느리고 출정했지만, 호왕과 선우의 협공으로 두 장수가 모두 죽고 명군은 대패한다. 비보를 접한 천자는 직접 중군이 되어 출정하며, 대성도 천문을 보고 적의 내침을 인지한 뒤 천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간다. 그런데 명군이 호군과

싸우다가 선봉장 호협을 비롯한 8명의 장수가 차례로 죽자, 명국 제장들이 두려워 아무도 출전하지 않으려 한다. 이때 소대성이 몰래 적진에 뛰어들어 단숨에 선우의 목을 베어온다. 화가 난 호왕이 대성과 대적하여 쉽게 승패를 가르지 못하자, 대장 성진과 부장 심한으로 하여금 각기 군사를 이끌고 자운동 어귀에 매복해 있다가 자신이 소대성을 유인해오면 남북에서 불을 놓기로 계략을 짠다. 물론 이 계략은 그대로 실행되어 소대성은 적에게 속아 죽을 위기를 맞게 되지만, 화덕진군의 도움으로 회생한 뒤 호왕과 적장을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

이상과 같이 <홍계월전>의 군담 1과 <소대성전>의 군담에는 적의 매복·화공 작전에 속아 죽을 위기에 처한 주인공이 초월적 인물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적을 물리친다는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나와 있다. 학계에서 <소대성전>의 출현 시기를 18세기 후반으로 추정<sup>7)</sup>하고 있음을 감안해볼 때, 18세기 말경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홍계월전>이 <소대성전>과 같은 전대 영웅소설의 군담을 적극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군담 2에 해당되는 ‘오·초 양국의 침공 1’에서 천자는 계월과 보국을 대원수와 중군장으로 삼아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출정한다. 보국이 적진으로 나아가 적장 운평, 운경을 차례로 벤 뒤 구덕지와 그의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위급해지자, 계월이 급히 가서 구덕지를 베고 보국을 구한 후에 적군을 격파한다. 이에 오·초 양왕이 크게 근심하자 맹길이가 계교를 낸다. 그는 호왕에게 본진을 굳게 지켜 문을 열고 나가 싸우지 말 것을 당부한 뒤, 삼경에 군사를 이끌고 황성으로 가서 달아나는 천자를 추격하여 항서를 바치라고 위협한다. 이에 천자가 용포를 찢어 항서를 쓰려고 할 때, 천기를 보고 급히 달려온 계월이 맹길을 죽이고 천자를 구해 황성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군담 2도 군담 1과 마찬가지로 <소대성전>의 군담 중 일부와

7)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대출판부, 2008, 389쪽.

매우 유사하다. 앞선 전투에서 두 장수를 잃은 호왕은 부장 섭한을 시켜 군사 5000명을 거느리고 황성을 공격하게 한다. 이를 안 소대성이 황성을 구하러 간 사이, 호왕이 명군을 공격하여 황제를 추격하니, 황제는 북문으로 급히 도망하여 황강 가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호왕이 줄곧 그 뒤를 쫓아 황제를 포위한 후 겁박하며 용포자락을 떼어 항서를 써서 바칠 것을 강요한다. 이에 황제가 어쩔 수 없이 항서를 쓰려고 할 때, 소대성이 비호처럼 나타나 황제를 구하고 승리를 거둔다.

이와 같이 <홍계월전>의 군담 2와 <소대성전>의 군담에 수용된 ‘황제구출담’은 매우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물론 그렇다고 둘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소대성전>에서는 소대성과 황제가 같은 전장에 있는 상황에서 소대성이 급습을 당한 황성을 구하러 간 사이 호왕이 황제를 공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비해 <홍계월전>에서는 황제가 황성에 있고 계월은 전장에 있는 상황에서 적이 황성을 급습하자 계월이 황제를 구출하기 위해 전장을 떠나 황성으로 달려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주지하듯 ‘황제구출담’은 본디 <설인귀전>에 근원을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8)</sup> 그런데 <홍계월전>의 ‘황제구출담’은 <설인귀전>의 그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고 <소대성전>의 해당 대목과는 친연성이 강하다. <홍계월전>의 군담 1·2와 유사한 것이 <소대성전>이 아닌 다른 작품에도 있을 수 있지만, <홍계월전>보다 먼저 창작된 18세기 중반 이후의 영웅소설 가운데 앞의 군담 1·2와 유사한 내용을 지닌 작품은 <소대성전> 외에 달리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홍계월전>의 군담 1에 형상화된 ‘자운동 매복·화공작전’과 군담 2에 나오는 ‘황제구출담’은 <소대성전>의 군담에서 핵심을 이루는 ‘천문동 매복·화공작전’과 ‘황제구출담’을 작중 상황에 맞게 적절히 변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9)</sup> 요컨대 <홍

8) 서대석, 앞책, 386쪽.

9) 군담의 확장 방식에 대한 최근 논의를 보면 <설인귀전>의 ‘황제구출담’이 일단 국내소설 <소대성전>에 변용된 이후에는 후대의 영웅소설이 <설인귀전>이 아

계월전>의 군담 1·2가 전대소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군담 3은 오·초 양왕의 아들과 맹길의 아우<sup>10)</sup>가 군담 2에서 계월에게 패하여 죽은 부친과 형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일으킨 전쟁이다. 이 전쟁은 단편 계월에는 없고, 장편 계월에만 수용되어 있다. 군담 3은 네 차례 전쟁 가운데 유일하게 계월이 제외되고 보국 혼자서 출전한 것인데, 군담 1·2에 비해 도술전의 성향이 매우 강하다. 황성에서 대군을 이끌고 출정한 대원수 보국은 장사에서 맹손을 만나 여러 차례 접전 끝에 그를 찢어 죽인다. 이에 맹손의 스승 공도사가 오색 구슬을 신장으로 변하게 하여 보국을 공격하니 보국이 순식간에 위협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곽도사가 오색 종이를 공중에 날려 학으로 변하게 하니, 오색 학이 날아가 공도사의 다섯 신장을 묶어 옴으로써 전쟁은 명국의 승리로 끝난다. 이 과정에서 침략을 주도한 순삼·덕삼은 곽도사의 도술에 걸려 포로가 되었다가 나중에 보국에 의해 처단된다.

이와 같이 <홍계월전>의 군담 3은 앞서 검토된 군담 1·2와 달리 신비로운 도술 대결이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매우 낯설고 이질적이다. 이러한 도술전은 <봉신연의>와 같은 중국 신마소설의 영향일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sup>11)</sup> 그렇다고 <홍계월전>과의 직접적인 수수관계를 상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17세기 후반 이래 <봉신연의>류의 중국 신마

닌 <소대성전>의 '황계구출담'을 지속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도환, 『고전소설 군담의 확장 방식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0, 148-153쪽). 이런 관점은 <홍계월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10) 단국대 96장분을 비롯한 대부분의 장편 이본에 오왕의 아들이 '덕삼'으로, 초왕의 아들이 '순삼'으로, 맹길의 아우가 '맹손'으로 소개되어 있다.

11) 정길수는 17세기 후반 장편소설의 형성 과정을 탐구하면서 <창선감의록>의 군담 가운데 도술 대결 부분이 <봉신연의>류 신마소설의 수법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소설에 본격적인 군담이 거의 없던 17세기 소설사의 지형을 고려할 때 <삼국지연의>, <수호전>과 함께 <봉신연의>류의 신마소설이 국내소설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정길수 『한국 고전장편소설의 형성 과정』, 들메개, 2005, 136-137쪽.



소설이 국내에 유입되어 읽혀지자, 도술담 위주의 군담에 대한 독서 경험이 <홍계월전>의 군담 3과 같은 새로운 도술담을 창안하는 데 중요한 자양분이 되었을 가능성은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 단국대 96장본의 말미에는 군담 3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보국이 회군 길에 광도사의 편지를 받아와서 계월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나와 있다.

평국이 봉서를 섬 〃 옥수로 바드 들고 선싱의 공을 싱각하여 덕성통곡  
하고 봉서를 써여보니 제비알만흔 구슬 혼노와 오리알만흔 구실 혼노며  
그 봉서 씌여찌라 그 서의 혼엿시디 스부는 혼 자 글노씨 덩을 붓치노  
라 푸른 구실 누린 구실을 전혼느니 촌후의 주려 죽게 되거던 일노씨  
주립을 면하라 너 친니 가서 보고 이 마을 일으고즈 혼여도 지리 달너  
못 가노라 삼연 후의 회도중으서 만노보리라 혼엿거늘 보기를 득혼 후  
의 선싱의 은혜를 못너 치스르고 구실과 봉서를 안히 간수하니라<sup>12)</sup>

편지를 통해 광도사가 전한 것은 ‘구슬 두 개’를 보내니 그것으로 주립을 면하라는 당부와 3년 후에 ‘해도에서 만날 것’이라는 기약이다. 그런데 이후의 서사를 보면 오·초 양왕이 새로운 오왕과 초왕으로 부임하는 여공과 홍시랑 일행을 습격하자 보국이 이를 진압하는 사건만 간략히 그려져 있을 뿐, 편지에서 말한 ‘구슬의 사용처’와 ‘해도에서의 만남’은 해결되지 않은 채 작품이 마무리된다. 단국대 96장본이 다른 이본에 비해 필사시기가 40년 이상 앞서니, 이를 후대의 전승과정에서 후반부 내용의 일부가 생략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와 같은 불완전한 결말이 초래된 까닭은 무엇일까?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12) 줄고, 『<홍계월전>의 구성원리와 미학적 기반』, 『한국문학논총』 제51집, 한국문학회, 2009, 185-186쪽.

### 3. 후대 이본의 군담 변이와 결말 방식

앞서 검토된바 단국대 96장본에는 세 차례의 군담이 그려져 있다. <홍계월전>에 군담이 여러 차례 설정된 까닭은 광도사가 예언한 ‘세 번 죽을 액’이 전쟁으로 구체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작품의 서사 논리로 보면 계월은 ‘예언 1’에 제시된 ‘세 번 죽을 액’과 ‘예언 2’에 제시된 ‘세 번 죽을 액’을 합쳐 모두 여섯 번의 액운을 겪어야 마땅하다. 두 차례의 ‘세 번 죽을 액’ 가운데 구체적인 군담으로 장면화하지 못한 ‘죽을 액’이 각기 하나씩 있음을 감안하면 ‘예언 1’과 관련해서는 군담 1·2가, ‘예언 2’와 관련해서는 군담 3·4가 그려져야 서사 논리를 온전히 갖추게 된다.<sup>13)</sup> 그런데 놀랍게도 필자가 수집한 장편 계열의 완질본 7종<sup>14)</sup> 가운데 이를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은 단국대 103장본 1종에 불과할 뿐 나머지 6종은 모두 군담 1·2·3만 그려내고 있다. 이는 곧 장편 계열에 속하는 대부분의 이본이 논리상 결함을 보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만약 그렇다면 이런 결함은 언제, 어떤 계기로 발생하게 되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후대 이본의 ‘군담’과 ‘결말부’의 변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군담 1·2·3은 장편 계열의 완질본에는 모두 수용되어 있다. 더구나 가장 이른 시기에 필사된 단국대 96장본과 나머지 이본의 군담 1·2·3이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장편 계열 내에서의 군담 변화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단국대 103장본에 군담 4가 추가된 점과 나머지 이본들이 ‘부임길의 습격 사건’의 설정 유무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점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에 비해 단편 계열의 완질본에는 군담 1·2만 수용된 경우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그런

13) 졸고(2009), 263-267쪽.

14) 단국대 59장본, 단국대 96장본, 단국대 103장본, 한중연 60장본, 박순호 63장본, 사제동 61장본, 연세대 29장본 등이 이에 해당된다.

데 단편 계열은 군담 1·2를 공유하고 있지만 계열 내에서의 차이를 뚜렷이 드러내고 있으므로 이 또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장편 계열과 단편 계열로 나누어서 후대 이본의 군담 및 결말부의 변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 3.1 장편 계열의 군담 변이와 결말 방식

필자가 수집한 장편 계열의 이본 9종 가운데 2종은 낙질본이고 7종은 완질본이다. 완질본 7종 가운데 단국대 96장본은 이미 앞장에서 검토했으므로, 여기서는 나머지 6종의 군담이 단국대 96장본의 군담에 비해 어떤 변이를 보이는가를 검토한다.

장편 계열의 완질본은 모두 군담 1·2·3을 동일하게 그려내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이들 사이에 차이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단국대 96장본, 단국대 59장본, 사재동 61장본에는 군담 1·2·3이 완료된 지점에 오·초 양왕의 손자(아들)가 새로운 오·초의 왕으로 부임하는 여공과 홍시랑을 급습하는 ‘부임길의 습격 사건’이 결부되어 있다. 이에 비해, 연세대 29장본에는 부임 과정은 있지만 습격 사건으로 비화되지는 않았고, 한중연 60장본과 박순호 63장본에는 이 대목이 아예 설정되지 않은 채 마무리되었다. 이처럼 ‘부임길의 습격 사건’은 개별 이본에 따라 수용, 변개, 생략 등의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군담 1·2·3을 수용한 이본들은 ‘부임길의 습격 사건’이 있든 없든 그와 상관없이 예언 2와 서사 내용의 불일치라는 공통적인 결함을 보인다. 이들은 예언 2의 ‘세 번 죽을 액’ 중에서 마지막 액에 해당되는 서사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국대 103장본을 제외한 모든 장편 이본이 이러한 결함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예사롭지 않다. 어찌면 예언 2와 서사 내용의 불일치는 창작 당시부터 유전되어 온 원작의 결함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군담 1·2·3을 수용한 이본에는 대부분 광도사가 보국을 통하여 계월에게 ‘구슬 두 개’를 전하고 ‘3년 뒤에

해도에서 만날 것'을 기약하는 내용이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와 연관된 후속 서사가 뒤따르지 않은 채 작품이 종결되므로, 독자들은 구슬의 용도가 무엇이며 해도에서 만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이 또한 창작 당시부터 유전되어 온 원작의 결함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일까, 후대의 이본 중 일부에는 이러한 결함을 인식한 독자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들이 남아 있다. 사재동 61장본은 다른 이본과 달리 예언 2의 '세 번 죽을 액'을 '한 액'으로 줄이고, '한 액'의 실현인 군담 3이 끝난 시점에서 광도사가 보국에게 "이제 이별하면 만나기 〃 약 망연호"<sup>15)</sup>라며 영별하는 것으로 서술의 합리성을 꾀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도 광도사가 계월에게 '구슬 두 개'를 전하며 급한 환을 면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은 있지만, 후속 서사에 그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구현된 것은 아니다.

연세대 29장본<sup>16)</sup>은 또 다른 변화를 보여준다. 이 이본의 앞표지에 "단기四二九四年八月日"이란 기록이 있어서 1961년에 필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연세대 29장본은 다른 이본에 비해 늦게 필사되었지만, 그 안에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다. 먼저, 이 이본에는 그동안 필자가 수집한 이본 가운데 단국대 96장본에만 나와 있던 특정 장면이 있다. 즉, 두 이본의 '군담 3'에는 '보국의 휘하 장수가 적장 맹손과 대결하다가 칼에 맞아 죽는 장면'<sup>17)</sup>이 있는데, 이 내용이 여타 장편 이본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단국대 96장본과 연세대 29장본이 동일 모본에서 파생된 이본임을 뜻한다. 다음으로, 연세대 29장본 말미에는 군담 3이

15) 사재동 61장본 <桂月傳>, 58장 b.

16) 연세대 29장본은 필사본이며 국한문이 혼용된 이본이다.

17) 단국대 96장본의 '군담 3'에는 명국 대원수 보국과 적장 맹손이 대적하기 전에 보국의 부장 '승만'이 자원하여 맹손과 싸우다 칼에 맞아 죽는 장면(단국대 96장본, 89장 a-b)이 묘사되어 있다. 이는 다른 이본에 나오지 않던 내용인데, 최근에 입수한 연세대 29장본에는 부장의 이름만 '心萬'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연세대 29장본, 26장 a)은 단국대 96장본의 해당 부분과 동일하다.

끝나는 시점에서 곽도사가 계월에게 전달한 ‘구슬 두 개’의 사용처가 분명하게 나와 있다. 그 대략은, 계월과 보국이 70세가 되어 기력이 쇠잔해 지자 지난 날 곽도사가 준 구슬 두 개를 갈아먹고 젊음을 되찾게 되었으며, 그 후 두 사람은 120세가 되도록 곽도사와 함께 고금사를 설화하며 살았다는 내용이다.<sup>18)</sup>

이와 같이 연세대 29장본은 그동안 어느 이본에서도 사용처를 마련하지 못했던 ‘구슬 두 개’를 ‘회춘’의 명약으로 활용하여 계월과 보국에게 수명 연장의 기적을 가져다주었다. 애초에 곽도사가 계월에게 ‘구슬 두 개’를 주면서 그것으로 ‘죽을 위기’를 면하라고 했을 때, 아마도 대부분의 독자들은 그 ‘죽을 위기’를 ‘전란’과 같은 국가적인 재앙 정도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세 번 죽을 액’이 두 차례 되풀이되는 동안 계월에게 닥친 불운의 대부분이 전란과 연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세대 29장본에서는 이를 결말 직전에서 생명 연장의 수단으로 활용했으니, 누군지 모를 개작자의 기지가 돋보인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라도 구슬의 사용처를 나름대로 해결하고자 한 이본은 연세대 29장본이 유일하다.

한편, 지금까지 검토된 이본에 비해 단국대 103장본에는 군담이 확대되어 있다. 이 이본에는 군담 1·2·3이 끝난 지점에 또 한 차례의 군담이 그려져 있는데, 이를 군담 4로 볼 수 있다. 군담 4는 오·초 양왕의 아들이 각기 부친의 원수를 갚기 위해 명국을 침공하는 데서 비롯되며, 군담 3과 마찬가지로 도술전의 양상을 보인다. 오·초 양왕의 아들이 명장 달복매를 앞세워 침공하자 계월과 보국이 각기 대원수와 부원수로 출정하여 오초강 가에서 대적하게 된다. 계월이 적장 달복매를 죽이고 호영과 싸우는데, 갑자기 한 장수가 붉은 부채를 부치자 일시에 질은 안개가 명진을 엄습하여 계월은 적에게 에워싸여 죽을 위기를 맞는다. 이때 곽도사가 산상에서 바라보다가 급히 남해 용왕을 시켜 계월을 구한

18) 연세대 29장본 <桂月傳>, 28장 b.

후 적을 섬멸하여 명국의 승리를 돕는다.

그런데 군담 4는 앞의 군담 1·2·3에 비하여 짧고 단순하여 온전한 장면으로 그려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담 4가 중요한 까닭은, 이것이 나와야 예언 2에 제시된 ‘세 번 죽을 액’의 마지막 액이 현실에 구현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작품의 논리적 정합성이 온전히 구비될 수 있다. 단국대 103장본은 이 문제를 말끔히 해결<sup>19)</sup>하였기 때문에 기존 논의에서도 장편 계열의 선본이자 <홍계월전>의 대표본으로 평가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앞서 확인된 바처럼 초기본인 단국대 96장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이본이 논리적 결함을 지니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볼 때, 오직 하나의 이본에만 ‘예언 2’의 ‘세 번 죽을 액’이 완비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게다가 단국대 103장본은 지질이 양호하고 글자들이 매우 정결하여 이른 시기에 필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단국대 103장본에는 군담 3·4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주체가 모두 오·초 양왕의 아들로 설정되어 있다.<sup>20)</sup> 이는 다른 대부분의 이본에 오·초 양왕의 침공(군담 2), 오·초 양왕 아들의 침공(군담 3), 오·초 양왕 손자의 습격 사건으로 되어 있는 것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앞서

19) “디원슈 비바람 기인 후의 정신을 츠려 본진으로 오라 할 제 광도스 압피 와 위로 왈 니 조금 더디더면 욱 불 번헝엿또다 원슈 말게 나려 사비 왈 소장이 사부 슬헝을 써는 후로 듀야 사모헝웁던 츠 삼연 전 보국 편의 헝찰 보웁고 오날날 이 익 당할 들과 사부 이리 오실 들 아라삼거이와 소장의 준명과 보국을 보존헝야 사직을 밧들게 헝웁시니 황공 감스헝여이다...(중략)...도스 왈 너희난 밧비가 군병을 호귀헝고 무사니 도라가라 이 후난 워니 업실 거시니 피츠 다시 불 날 업난지라 부디 무사이 도라가라”(단국대 103장본 <홍계월전>, 201-202쪽)

20) 군담 3: “지금 오왕의 아달과 초왕의 즈 준삼과 링길의 아오 링순니 제 아비 형의 원슈을 갑고져 헝여...”(180면), 부임길의 습격사건: “이후의 오초 양왕의 아달과 공운 삼인니 모야 천병만 〃을 거나리고 천연산 의구의 밧복헝고 황성을 쳐 두 츠레 원슈 갑기를 의논헝나이라”(195면), 군담 4: “초왕의 아달과 오왕의 아달니 제 아비 원슈을 갑고져 헝여 명장 천여 원과 군스 빅만을 거나리고 디국을 향헝야 오머...”(197면)

군담 2에서 오왕과 초왕이 계월과 보국에게 패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원수를 갚기 위해 한 차례 정도 후속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계월과 보국은 교체되지 않고 출전하는데 상대편에서는 父·子·孫에 이르는 삼대가 지속적으로 전쟁에 참여한다는 상황 설정은 아무래도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면 필자가 검토한 9종의 장편 이본 가운데 단국대 103장본에만 나와 있는 군담 4는 후대에 이르러 적극적인 독자가 의도적으로 추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단국대 103장본은 원작에서 유전된 작품의 결함을 명확히 인식한 후대의 독자가 그 결함을 바로 잡아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목적으로 군담 4를 삽입해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단지 서술의 합리성과 안정된 서사를 갖추었음을 근거로 단국대 103장본을 “원작의 내용을 가장 충실히 계승한 이본”<sup>21)</sup>으로 보는 관점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 3.2 단편 계열의 군담 변이와 결말 방식

앞서 언급한바 장편 계열의 모든 완질본에 군담 1·2·3이 수용된 것과는 달리, 단편 계열의 이본에는 군담 1·2만 수용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편 계열이 장편 계열의 서사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예언 2에 해당되는 ‘세 번 죽을 액’을 통째로 생략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렇다면 예언 1의 ‘세 번 죽을 액’만 살리고 예언 2의 ‘세 번 죽을 액’을 생략한 단편 계열의 이본들은 모두 동일한 서사 내용을 보이고 있는가? 선행 연구에서는 단편 계열 내에서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이들을 모두 ‘한중연 45장본 계열’로 묶고 있다.<sup>22)</sup> 그런데 최근 필자는 그간 수집된 개별 이본들을 정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입부, 군담 2, 결말부에서 한중연 45장본 계열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는 이본들을

21) 줄고(2008), 267쪽.

22) 줄고(2008), 249쪽.

확인할 수 있었다.<sup>23)</sup> 이에 따라 여기서는 세 가지 대목을 중심으로 한중연 45장본과 단국대 38장본<sup>24)</sup>을 대비적으로 검토하면서 기존 논의의 오류를 바로잡고 단편 계열의 실상을 명확히 밝히기로 한다.

첫째, 도입부에서 한중연 45장본과 단국대 38장본은 ‘고소대 일봉암 여승’의 등장 유무에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이 부분의 원문을 보기로 하자.

일〃은 부닌니 사랑쎄 고희여 갈노디 世上의 無子하온 죄가 크다 ㅎ  
 온니 𨔵을 심각지 말으시고 양가 숙여을 求히여 후사을 잇게 ㅎ옵소서  
 한디 사랑니 청과의 우서 왈 즈식 읍기난 너의 죄라 부인은 염에 마압  
 소서 ㅎ니 부인니 공순니 디왈 지성이면 감천니라 ㅎ오니 우리 세간이  
 비록 만은되 전할 고지 읍스온니 산신과 붓쳐임 전의 정성을 드러 보스  
 이다 ㅎ고 每日 祝願히던니 할노난 노승이 와 문안히디 부인니 드러오  
라 ㅎ여 본 즉 과연 한 승일너라 부인니 問曰 노승은 무삼 일노 𨔵난니  
가 儂 니 사랑 양위 전의 절히고 옛즈온디 소승은 고소디 일봉암의 𨔵  
삼던니 절니 퇴락히와 관세암 불전니 풍우을 폐치 못히와 중슈코져 ㅎ  
오되 지력니 읍사와 儂이 𨔵스온즉 상공적에서 정성일 일삼난다 ㅎ옵기  
로 불원철니 ㅎ압고 왓사온니 상공임 적선히옵소서 부인니 디왈 을마나  
ㅎ면 중슈할고 하며 우리 세간니 비록 만은나 𨔵길 고지 읍사온니 차알  
니 불도의 들여 ㅎ길나 닥그리라 ㅎ고 은즈 五百兩을 주며 왈 절을 중  
슈한 후의 우리 ㅎ한 죄을 발원히옵소서 老僧니 부복 奏曰 지성니면 감

23) 단국대 38장본 <홍평국전>, 연세대 41장본 <홍계월전>, 단국대 62장본 <洪桂月傳>, 구수영 64장본 <계월전>이 이에 해당된다. 단국대 38장본은 계묘년(1903)에 필사되었고, 연세대 41장본은 을묘년(1915)에 필사되었으며, 단국대 62장본은 필사기가 없어 필사연도를 추정할 수 없다.

24) 한중연 45장본은 선행 연구에서 단편 계열의 선본으로 추정된 바 있으므로 이를 논의 대상으로 삼을 만하다. 한편, 단국대 38장본, 연세대 41장본, 단국대 62장본, 구수영 64장본은 서사 골격과 세부 내용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단국대 62장본은 첫 장이 낙장이고 뒷부분의 여러 장에 모서리가 훼손되어 논의 자료로는 적절치 않다. 나머지 3종은 완질본으로 내용이 유사하지만, 필사연도가 앞서고 내용이 보다 자세한 단국대 38장본을 선본으로 삼을 만하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한중연 45장본과 단국대 38장본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다.



천니라 호온니 부처임계 공을 드여 보사니다 호고 시랑 부 전의 百拜  
치사호고 生月日時을 기록호여 가지고 가니라 此時의 부인니 중을 보니  
고 미일 기도호여 천형으로 즈식을 불가 원호던니 일 은 부인니 몸니  
곤호여 침석의 " 지호여편이 문득 하날노셔...<sup>25)</sup>

위의 인용문에서 밑줄 친 부분은 고소대 일봉암에 거주하는 노승이 퇴락한 절의 중수를 위해 홍시랑 댁을 방문하여 시주를 받아가는 장면이다. 그런데 이 장면은 단국대 38장본, 단국대 62장본, 연세대 41장본, 구수영 64장본에만 수용되어 있고, 다른 이본에는 일절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고소대 일봉암의 여승에게 시주하는 장면의 유무가 후속 서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 잠시 장사랑의 난에 주목해 보자. 계월은 이전에 곽도사가 예언한 대로 5세에 장사랑의 난을 만나 피신하다가, 어미 양씨부인은 수적 맹길에게 잡혀가고 자신은 강물에 던져지는 수난을 겪는다. 그런데 맹길에게 잡혀간 양씨부인은 먼저 잡혀와 있던 춘양과 함께 탈출한 뒤 강가에서 우연히 만난 여승을 따라 한 암자로 가게 된다. 그런데 그 암자가 곧 '고소대 일봉암'이며, 그곳 주지승은 지난날 자신의 집에 시주를 받으러 온 여승이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밑줄 친 내용은 장사랑의 난으로 위기에 직면한 양씨부인의 피난처를 자연스럽게 마련하기 위한 서사적 장치로 볼 수 있다. 추정컨대 후대의 적극적인 독자가 원래 전승되던 이본에는 없던 이 부분을 채워 넣음으로써 부처님께 시주한 일과 전란 중에 피난처를 마련한 일을 인과 관계로 묶어두고자 한 것이 아닐까 싶다. 어쨌든 '시주 모티프'의 삽입으로 서사의 긴밀성과 개연성이 한층 높아진 셈이다.

둘째, 한중연 45장본과 단국대 38장본은 군담 2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한중연 45장본의 군담 1·2는 단국대 96장본을 비롯한 장편 계열의 군담 1·2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단국대 38장본의 경우, 군담 1은 여타 이본과 같지만 군담 2는 변개의 흔적을 보인다. 그

25) 단국대 38장본 <홍평국전>, 1장.

변개는 ‘맹길’ 대신 ‘맹달’이란 장수를 설정하고, 계월이 오·초 양국의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며, 홍시랑 부부와 황후·태자 일행의 피난 및 귀환 과정을 생략한 점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적장 ‘맹길’이 ‘맹달’로 바뀐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 ‘맹길’은 장사랑의 난 때 피난 가던 양씨부인을 납치하고 계월을 물에 던진 수적이다. 한중연 45장본에는 그 ‘맹길’이 오·초 양국의 장수로서 황성을 급습하여 천자에게 항복을 종용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계월의 입장에서 보면 어미를 납치하고 자신을 강물에 던진 개인 및 가문의 원수가 국가의 적대자로 부상했으니, 그에 대한 적개심과 복수의지도 그만큼 배가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대부분의 이본에는 ‘맹길’이 계월과의 전투 중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일단 계월에게 사로잡힌 뒤에 ‘행군복’을 등에 진 채 황성까지 끌려가는 것으로 되어있다. 황성에 도착한 계월은 특별히 ‘맹길’을 문초하여 지난날의 죄상을 실토 받은 뒤 살점을 점점이 오려내고 배를 갈라 간을 꺼내는 살벌한 복수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그런데 ‘맹길’을 ‘맹달’로 바꾼 단국대 38장본에는 ‘맹달’이 전투 중에 계월에게 살해되는 것으로 간략히 처리되어 있다. 애초부터 ‘맹달’과 계월 사이에는 개인적인 원한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이본의 이와 같은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보기에 따라서는 평소 노략질을 일삼던 수적이 특별한 계기도 없이 한 나라의 장수로 출정하여 천자를 위협하는 인물로 부각되는 것이 개연성 없는 설정으로 비취질 수 있다. 더구나 여성영웅소설을 오랫동안 탐독한 독자라면 충분히 ‘맹길’의 석연찮은 활동에 의구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볼 때 ‘맹길’을 ‘맹달’로 바꾼 것은 전대의 이본에 대하여 ‘논쟁적 이의를 제기’하고 ‘서사적 의문을 해소’<sup>26)</sup>하려는 후대 독자의 의도가 작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6) 정충권은 <토끼전>의 다양한 결말 방식에 주목하여 고소설의 개작 및 변이 원리로 ①서사적 의문의 해소, ②특정 인물(동물) 편들기, ③논쟁적 이의 제기, ④빈틈 메우기 등 네 가지를 들고 있다. 그런데 그가 제시한 네 가지 원리는 비단 <토끼전>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정충권, 『<토

계월이 오·초 양국의 왕을 살려준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중연 45장본에는 계월이 천자를 구하러 황성으로 간 사이 전장에 남아있던 보국은 장졸을 거느리고 오·초 양국과 일전을 펼쳐 두 나라의 왕을 사로잡는다. 그 사이 계월은 황성으로 가서 천자를 구한 뒤 천자와 함께 보국의 진으로 달려간다. 그런데 천자가 계월과 보국의 무예 시합을 구경하고픈 마음에 계월에게 적장의 복색과 말로 위장하여 보국과 한판 대결을 펼치게 하니, 보국이 계월을 적장으로 알고 대적했다가 크게 패한 뒤에야 계월에게 속은 사실을 알고 몹시 부끄러워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국은 이미 계월이 오기 전에 오·초 양국과 맹렬히 싸워 두 왕을 사로잡아 둔 터였다. 때문에 계월과의 무예 시합이 끝나자마자 오·초 양왕을 황성으로 끌고 가서 엄히 질책하고 목을 벤다. 이와 같이 한중연 45장본의 군담 2에서는 오·초 양왕이 중원을 탐한 죄로 극단적인 처벌을 받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이에 비해, 단국대 38장본에는 계월이 황성으로 천자를 구하러 간 사이 보국은 적과 싸우지 않고 대치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다가 계월이 황성에서 돌아와 ‘맹달’의 머리를 창끝에 꿰어 원문 밖에 세우니 오·초 양왕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 즉시 항복한다. 이와 같이 단국대 38장본에는 계월 부재 시에 보국이 단독으로 오·초 양왕과 싸우는 장면 및 천자를 구하고 돌아온 계월이 보국과 무예 시합을 하는 장면이 없다. 대신 그 자리에는 계월과 보국이 오·초 양왕에게 항서를 받고 용서하는 내용이 간략히 서술되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계월이 오·초 양왕을 사로잡고서도 끝내 죽이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앞서 적장이 ‘맹길’에서 ‘맹달’로 바뀐 탓에 적장에 대한 계월의 개인적인 원한과 분노가 존재할 수 없었다면, 오·초 양왕은 보국과 계월을 맞아 제대로 저항 한 번 못하고 항복했기 때문에 계월로서는 승자의 넓은 아량

---

기전> 결말의 변이양상과 고소설의 존재 방식], 『새국어교육』 71, 한국국어교육학회, 2005, 533-537쪽.

으로 둘을 혼계<sup>27)</sup>하는 선에서 놓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홍시랑 부부와 황후·태자 일행의 피난 및 귀환 과정을 생략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중연 45장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이본에서 계월의 가족이합은 두 번 되풀이된다. 처음 장사랑의 난으로 가족과 이별한 계월은 서번·서달과의 전쟁에서 달아나는 서달 일당을 추격하여 벽파도로 갔다가 그곳에 모여 있던 부모와 상봉한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오·초 양국이 침공하자 계월은 출정하고 홍시랑 부부는 황후·태자 일행과 함께 광도사가 머무는 곳에 피신해 있다가 전쟁이 끝난 뒤에 황성으로 귀환하여 계월과 상봉한다. 이들이 귀환할 때 광도사는 홍시랑을 통해 계월에게 봉서를 전했는데, 그 봉서는 ‘이제 모든 액이 사라졌으니 서로 불 날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원래 <홍계월전>은 도입부에서 광도사의 예언이 제시되면 그 예언의 구체적 실현과정이 전체 서사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예언이 모두 실현된 후 광도사가 봉서를 통해 계월에게 알리고 나면 작품이 마무리된다. 다만 이 과정이 한 번 뿐인가, 두 번 반복되는가에 따라 단편 계열과 장편 계열이 나뉠 뿐이다.

그런데 단국대 38장본에는 홍시랑 부부와 황후·태자 일행의 피난 및 귀환 과정이 통째로 생략되어 결말마저 다소 모호하게 처리될 소지를 보인다. 굳이 이 대목을 생략한 것은 계월 가족의 이합과정을 최소화하여 보국과의 서술 균형을 맞추려는 개작자의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미 전반부에서 계월 가족의 이합과정을 비중 있게 그려냈는데 후반부에서 이를 또 다시 되풀이한다는 것이 독자에게는 논쟁적 이의를 제기할 만한 요소로 비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sup>28)</sup>

27) “元帥 諸將을 呼令하여 吳楚 兩王을 本陣으로 待令하라 하고 元帥 將臺의 坐起 하고 吳楚 兩王을 잡아들이어 帳下의 竝이고 크게 呼令 曰 네 天地을 몰오고 皇城을 범하니 웃지 살기를 밧이리요 그러나 잔명을 약기어 너의을 살여 보닌니 순슈하여 조공을 톡만치 말라 하고 밧비 ” 원문 박계 너입하고 절권 三十一 도식 썩리어 너친니 吳楚 兩王니 元帥에 은혜을 못너 淸찬하고 나문 軍士을 거 날니어 本國으로 도라간니라”(단국대 38장본, 36장 a)

28) 물론 군담의 반복을 두고도 적극적인 독자들의 ‘논쟁적 이의’가 제기될 법하지

셋째, 결말 방식의 변화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중연 45장본의 경우, 계월과 보국의 승리로 군담 2가 마무리되면 피난 갔던 홍시랑 일행이 황성으로 돌아와 계월과 상봉하게 된다. 그런 다음 홍시랑과 여공이 오·초 양왕으로 부임하고 나면 간략한 후일담과 함께 작품은 종결된다. 고소설의 일반적인 결말 방식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완만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맹길’은 장사랑의 난 때 양씨부인을 납치한 수적이면서 군담 2에서는 적장으로 출정하여 황제를 겁박하며 항서를 강요했던 인물이다. 그래서 계월은 개인적 원수이자 국가적 적대자인 ‘맹길’을 처단할 때 극한의 원한과 복수심을 감추지 못한 채 살을 도려내고 간을 끄집어내는 광기를 드러냈던 것이다. 한중연 45장본과 궤를 같이하는 모든 이본은 이와 같은 결말 방식을 보인다.

이에 비해 단국대 38장본에는 군담 2가 마무리되고 결말을 앞둔 시점에서 느닷없이 ‘맹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이는 일종의 서사적 일탈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일탈은 군담 2에서 오·초 양국의 장수를 ‘맹길’에서 ‘맹달’로 바꾼 데서 기인한 것이다. 단국대 38장본에서 ‘맹길’이 보여준 행적은 ‘수적’으로 계월을 강물에 던지고 양씨부인을 납치한 것이 전부일 정도로 그의 존재감이 눈에 띄게 약화되어 있다. 그런 ‘맹길’이 이후 서사에서 전혀 종적을 보이지 않다가 결말 직전에 느닷없이 황성으로 송환되어 처형되니,<sup>29)</sup> 서사 논리상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작품 초반에서 ‘맹길’이 계월 모녀에게 안긴 극한의 수난을 상기할 때 이러한 처벌은 그야말로 구색을 맞추기 위한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

만, <홍계월전>이 여성영웅소설인 점을 감안하면 군담은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두 차례 정도는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다.

29) “일〓은 후가 활능 티수 한티의계 관즈혀여 밍길 흐는 수적을 즈브 황성으로 보니라 흐시이 잇씩 활능 太守 밍길을 잡아 황성으로 보니라 이적의 元帥 밍길리 잡아왔단 말을 듯고 별능의 좌기흐고 국공과 부인을 뵈시고 밍길을 잡아드려 죄목을 물을 식 부인니 밍길을 보시고 분기등천혀여 말을 못지 안니흐고 스연을天子췌 주달하니天子 분기를 니기지 못혀여 밧비 버히라 흐시덜라”(단국대 38장본, 37장 a)

결국 군담 2에서 별도로 ‘맹달’을 설정한 것이 계열의 주적인 ‘맹길’의 존재감을 약화시키고 결말의 어색함까지 가져온 것이다.

이상과 같이 <홍계월전>은 애초부터 군담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결함을 지닌 채 창작·유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후대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이런 결함을 인식한 독자들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 군담과 결말에 다채로운 변이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물론 그 변이는 장편 계열 내에 국한되지 않고 장편의 단편화와 단편 계열 내에서의 변이까지 수반함으로써 <홍계월전>의 이본 분화를 촉진한 것으로 추정된다.

#### 4. 군담 변이와 이본 분화의 상관성

<홍계월전>의 이본에 대한 논의는 최근에 와서 시작되었다.<sup>30)</sup> 여기서는 수집된 이본 16종을 두 계열로 나누고 있다. 즉 작품의 구조적 원리가 되는 예언 1과 예언 2를 모두 갖춘 이본을 ‘장편 계열’로, 예언 1만 갖춘 이본을 ‘단편 계열’로 설정하고, 각 계열을 대표할 수 있는 선본의 이름을 내세워 장편의 ‘단국대 103장본 계열’과 단편의 ‘한중연 45장본 계열’로 구분하였던 것이다.<sup>31)</sup> 이 논의의 핵심은 ‘단국대 103장본 계열’을 원전의 서사 골격을 계승한 이본으로, ‘한중연 45장본 계열’을 후대의 축약본으로 추정하는 점이다. 그런데 <홍계월전>의 이본을 이처럼 거시적 관점에서만 조망하면 개별 이본의 미세한 특징과 가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까닭에 이 장에서는 군담 변이와 이본 분화의 상관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필사시기가 단연 앞서서 단국대 96장본을 원작에 준하는

30) 한국학술정보원에 등록된 <홍계월전>에 대한 논문 수는 100편을 상회한다. 이들 가운데 <홍계월전>의 이본을 본격적으로 다룬 논문은 1편에 불과하다. 정준식, 『<홍계월전> 이본 재론』, 『어문학』 제101집, 한국어문학회, 2008.

31) 줄고(2008), 249쪽.

이본으로 간주하고, 이를 중심으로 후대 이본의 변이양상을 검토하였다. 단국대 96장본이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모본을 등서한 것이라면, 그 모본은 적어도 단국대 96장본이 필사된 해인 1861년보다 이전에 존재했음이 분명하다. 그로부터 1910년을 전후한 시기까지 약 50년 남짓한 기간<sup>32)</sup> 동안 <홍계월전>은 다채로운 군담의 변이를 통해 네 가지 방향으로 이본 분화가 촉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군담의 지속, 확대, 축소, 변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지속’은 단국대 96장본과 같은 초기본의 군담을 별다른 변화 없이 단순 수용하여 지속해간 경우이다. 이에 속하는 이본은 연세대 29장본, 단국대 59장본, 사제동 61장본, 박순호 63장본, 한중연 60장본 등이다. 이들은 모두 군담 1·2·3을 공유하고 있으면서 이어지는 ‘부임길의 습격 사건’의 추가 여부에 따라 결말 시점과 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이처럼 장편 계열의 개별 이본들이 군담은 같은데 결말 시점과 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원작의 결말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 문제는 예언 2의 ‘세 번 죽을 액’에서 마지막 액을 구체적인 서사로 온전히 실현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단국대 96장본을 비롯한 6종을 동일 이본군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단국대 96장본은 학계에 알려진 이본 가운데 유일하게 초기본의 면모를 지닌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이본은 향후 <홍계월전>의 이본 계통을 밝히고 원전을 탐색하는 데 기준으로 삼을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처럼 초기본의 군담을 ‘지속’한 이본들을 ‘단국대 96장본 유형’으로 설정한다.

둘째, ‘확대’는 단국대 96장본과 같은 초기본의 군담에다 새로운 군담을 하나 더 추가한 경우이다. 이에 속하는 이본은 단국대 103장본이다. 이 이본은 초기본의 군담 1·2·3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군담 4를 별도

32) 본고에서 활용한 이본들의 필사 간기를 보니 대략 1861년부터 1911년 사이에 걸쳐 있다. 이로 볼 때 필사본 <홍계월전>이 독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읽혀진 시기는 19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로 기워 넣는 방식으로 확대를 꾀하고 있다. 단국대 96장본을 비롯한 원작 계열의 이본이 지닌 공통된 결함은 예언 2의 ‘세 번 죽을 액’ 가운데 마지막 액이 구체화되지 않은 채 서사가 종결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단국대 103장본은 그 ‘마지막 액’을 군담 4로 구체화하여 이러한 결함을 말끔히 해결함으로써 원작 계열의 다른 이본보다 완성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이본은 그룹을 형성하지 못한 채 예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후대의 독자가 전래되던 이본의 서사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군담을 확대한 것이 아닐까 싶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이와 동일한 서사 내용을 지닌 이본의 발굴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여기서는 초기본의 군담을 ‘확대’한 이본을 ‘단국대 103장본 유형’으로 설정한다.

셋째, ‘축소’는 단국대 96장본과 같은 초기본에서 군담 1·2를 그대로 수용하고 나머지 군담은 통째로 생략한 경우이다. 이에 속하는 이본은 한중연 45장본, 한중연 35장본, 한중연 47장본 등이다. 군담 1·2만으로 작품을 구성하게 된 계기에 관해서는 앞으로 여러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서 하나 추정할 수 있는 것은 후대 여성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계월의 우월성을 두드러지게 부각하기 위해서는 보국의 단독 출정과 전투 능력을 돋보이게 그려낸 군담 3의 생략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초기본의 군담 1·2만을 수용하여 계월의 우월성을 돋보이게 한 이본들을 ‘한중연 45장본 유형’으로 설정한다.

넷째, ‘변개’는 단국대 96장본과 같은 초기본에서 군담 1·2만을 취한 점에서는 한중연 45장본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변개’를 보이는 이본은 모두 도입부, 군담 2, 결말부에서 한중연 45장본 유형과 차이를 보이는 대목을 지니고 있다. 이에 속하는 이본은 단국대 38장본, 단국대 62장본, 연세대 41장본, 구수영 64장본 등이다. 도입부의 ‘시주 모티프’는 훗날 양씨부인이 전란을 피해 고소대 일봉암에 피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서사적 장치로 설정된 것이다. 그리고 군담 2에서



‘맹길’을 ‘맹달’로 교체한 것은 한낱 수직에 불과한 ‘맹길’이 특별한 계기도 없이 오·초 양국의 장수로 등장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홍시랑 부부의 피난 및 귀환 과정을 생략’한 것은 두 번 반복되는 계월 가족의 이합과정이 지루함을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군담 2에서 무리한 변개와 생략이 이루어진 결과 이들 이본의 결말은 축급하고 어설프며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요컨대 ‘변개’에 해당되는 이본들은 후대 독자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때로는 서사의 긴밀성을 떨어뜨려 원작의 가치를 훼손할 수도 있음을 명확히 확인시켜 주는 본보기가 된다. 이처럼 도입부, 군담 2, 결말부를 ‘변개’한 이본들을 ‘단국대 38장본 유형’으로 설정한다.

이처럼 <홍계월전>의 이본은 군담의 지속, 확대, 축소, 변개에 따라 네 유형으로 분류된다. ‘단국대 96장본 유형’과 ‘단국대 103장본 유형’은 원작을 계승한 장편 계열이 후대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이본 분화가 촉진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단국대 103장본만 가지고 별도의 유형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국대 103장본은 누군가가 개작 의도를 가지고 ‘군담 4’를 추가 하면서 원작 계통의 이본이 지닌 결함을 해결하려 한 것이므로, 그 목적성에 주목하여 별도의 유형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sup>33)</sup> 한편 후대의 축약본인 ‘한중연 45장본 유형’과 ‘단국대 38장본 유형’의 선후 관계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관점에 따라서는 장편 계열에서 단편 계열이 생성된 후에 단편 계열 내부에서 새로운 유형이 파생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장편 계열에서 단편화된 두 유형이 별도로 파생되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경우이든 두 유형이 보이고 있는

33) 단국대 103장본은 <홍계월전>의 선본(善本)이자 대표본의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원전의 결함을 그대로 물려받고 있는 다른 장편 계열의 이본과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국대 103장본과 동일한 내용을 지닌 새로운 이본의 발굴이 요구되므로, 여기서는 일단 그 가능성만 열 어두기로 한다.

분명한 차이야말로 단편 계열이 단선적으로 전승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주는 구체적 증거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홍계월전>의 전승과정에서 발생한 군담의 변이는 새로운 이본의 생성 및 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 분화는 대략 네 방향으로 촉진되었던 바, 장편 계열 내부에서 발생한 다양한 변화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장편의 단편화 혹은 단편 내부에서의 변이도 단선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홍계월전>의 이본 연구는 장편 계열에서 단편 계열로의 이행을 기반으로 삼되, 본고에서 수립한 네 유형을 중심으로 이들의 얽힘과 개별 이본들의 변별성을 확보해 나가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5. 남은 문제

본고의 논의는 필사연대가 확실한 단국대 96장본을 원전에 준하는 초기본으로 상정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단국대 96장본 및 이와 동일 유형으로 분류되는 이본들이 대부분 논리적 결함과 서사적 빈틈을 노출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새로운 논쟁거리가 될 만하다. 어쨌든 원작이 후대의 이본보다 반드시 온전하거나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이본과 자주 씨름해본 연구자라면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필자는 본고의 논의를 통해 <홍계월전>의 원작이 그랬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해 본다. 이런 관점에서 향후 <홍계월전> 연구와 관련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본고에서는 활자본을 논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활자본은 통상 1종으로 보는 것이 관례인데, 한중연 45장본과의 연관성을 밝힌 것 외에 아직 다른 필사본과의 영향 수수관계에는 주목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는 이런 논의가 생략된 채 마지막 시기의 변모상을 보

여주는 활자본을 <홍계월전>의 대표본인 양 연구해온 측면이 없지 않다. 앞으로 필사본에서 활자본으로의 전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이본을 적극 수집하는 한편, 그 과정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논의가 절실히 요구된다.

둘째, 필자는 최근 <홍계월전>의 이본 20여 종을 수집·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물론 선행 연구에서 단국대 103장본(장편 계열)이나 한중연 45장본(단편 계열)과 같은 선본을 가려내는 성과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계월전>의 이본에 대한 논의는 아직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더구나 수집된 이본들은 어느 것이든 군데군데 빈틈이 있고 부분적인 생략과 오탈자 등이 발견되기 때문에 원활한 연구를 위해서는 하루 빨리 정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고의 논의로 볼 때 <홍계월전>의 정본 구축 작업에서는 단국대 96장본과 단국대 103장본을 핵심 자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본고에서 설정한 네 가지 이본 유형을 바탕으로 <홍계월전>의 이본 계통을 수립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 참고문헌

- 구수영 64장본 <홍계월전>,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 고서실 소장  
단국대 38장본 <홍평국전>, 단국대 율곡기념도서관 고전자료실 소장  
단국대 57장본 <홍계월전>, 단국대 율곡기념도서관 고전자료실 소장  
단국대 59장본 <홍영월전>, 단국대 율곡기념도서관 고전자료실 소장  
단국대 62장본 <洪桂月傳>, 단국대 율곡기념도서관 고전자료실 소장  
단국대 74장본 <홍계월전>, 단국대 율곡기념도서관 고전자료실 소장  
단국대 96장본 <계월전>, 단국대 율곡기념도서관 고전자료실 소장  
단국대 103장본 <홍계월전>, 단국대 율곡기념도서관 고전자료실 소장  
박순호 63장본 <계월충렬록>, 월촌문헌연구소 편,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2  
사재동 61장본 <桂月傳>,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 고서실 소장  
연세대 29장본 <桂月傳>, 연세대 중앙도서관 국학자료실 소장  
연세대 41장본 <홍계월전>, 연세대 중앙도서관 국학자료실 소장  
한중연 35장본 <계월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한중연 45장본 <洪桂月傳>,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한중연 47장본 <홍계월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한중연 60장본 <홍계월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김도환, 「고전소설 군담의 확장 방식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0.  
김정녀,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본 여성영웅 홍계월」, 『고소설연구』 제35집, 한국고소설학회, 2013, 105-135쪽.  
김현화, 「홍계월전의 여성영웅 공간 양상과 문학적 의미」, 『한민족어문학』 제70집, 한민족어문학회, 2015, 235-266쪽.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대출판부, 2008,  
이기대, 「고등학교 교과서를 통해 본 <홍계월전>의 정전화 과정」, 『우리문학연구』 제37집, 우리문학회, 2012, 89-119쪽.

- 정길수, 『한국 고전장편소설의 형성 과정』, 돌베개, 2005.
- 정준식, 「<홍계월전> 이본 재론」, 『어문학』 제101집, 한국어문학회, 2008, 247-279쪽.
- 정준식, 「<홍계월전>의 구성원리와 미학적 기반」, 『한국문학논총』 제51집, 한국문학회, 2009, 51-74쪽.
- 정충권, 「<토끼전> 결말의 변이양상과 고소설의 존재 방식」, 『새국어교육』 71, 한국국어교육학회, 2005, 521-539쪽.
- 조광국, 「고전소설 교육에서 새롭게 읽는 재미 : 홍계월의 양성성 형성의 양상과 의미, -<홍계월전> ‘한중연 45장본’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제28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4, 65-93쪽.
- 조민경, 「갈등양상을 통해 본 <홍계월전>의 지향가치」, 『한국어와 문화』 제18집, 숙명여대 한국어문화연구소, 2015, 203-229쪽.

<Abstract>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tion of Military Story in *Honggyewoljeon* and the Generation of its Different Versions

Jeong, Jun-Sik

This paper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tion of military story in *Honggyewoljeon* and the generation of its different version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compared the military story of the 96-piece edition of Dankuk University that shows the aspects of the early version with different versions of later era.

Since the time of its creation, *Honggyewoljeon* has been known to have partial defects, mainly in the military story. However, while it was passed down to the later generations, the active intervention of readers who recognized this contradiction led to a variety of variations in the military story and endings. It is assumed that the variation was not limited to long versions but accompanied the transition of long versions to short versions and variations within short versions, prompting the generation and differentiation of new versions.

It is presumed that the 96-piece edition of Dankuk University, which 'retains' the military story of the early version, was solely passed down, and other later versions-103-piece edition of Dankuk University that 'expanded' the military story of the early version, 45-piece edition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that 'left out'

some parts, and 38-piece edition of Dankuk University that ‘altered’ the early version-were created with time gap in between. When considering the collected versions as the base of analysis, it is presumed the 96-piece edition of Dankuk University and 45-piece edition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re the mainstream of the long version and short version respectively. Therefore, in the future, the discussions on the different versions of *Honggyewoljeon* should be based on the four types that have been established in this paper instead of presupposing the lineal transition from long versions to short versions.

Key Words : long versions, short versions, 96-piece edition of Dankuk University, military story, way of ending, generation of different versions

■ 논문접수 : 2017년 2월 27일

■ 심사완료 : 2017년 4월 4일

■ 게재확정 : 2017년 4월 17일